

### 3. 벤처 企業의 活性化

- (벤처 企業의 育成的 意義) 지식기반경제에 가장 적합한 기업형태로서, 국내 산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극복에 선도적 역할이 기대됨
- (現況 및 展望) 중소기업 창업이 활발함에 비해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의 창업은 상대적으로 저조함. 그러나 잠재적인 벤처창업 열기가 매우 높아 향후 벤처기업 활성화의 가능성은 매우 높음
- (政策 課題) 목표지향적 정책보다는 벤처기업 성장의 토양과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함. 향후 핵심 정책과제는 제도적 여건 정비, 胚胎組織 육성, 지원조직 활성화,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으로 집약됨
- (大企業의 課題)
  - 벤처캐피탈 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기술탐색·평가 능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함. 특히 해외 벤처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함
  - 사내 연구인력의 창업지원 등을 통해 네트워크형 기업 지향

올해 들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들이 경쟁적으로 발표됨

#### ○ 벤처기업 지원정책 대폭 강화 움직임

- 벤처기업<sup>1)</sup>을 위한 장외시장 코스닥(KOSDAQ) 개설, 스톡옵션제 도입 등에 이어, 정부 각 부처 등에서 각종 정책방안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음
- 특히 세계화추진위원회의 「벤처기업 활성화 방안」(3/12)은 매우 강력한 지원 의지를 담고 있어 주목
  - 벤처캐피탈의 업무영역 확대 및 세제지원 강화
  - 개인자금의 벤처캐피탈화(엔젤 캐피탈)를 유도하기 위해 자금출처 조사 면제 및 세제 지원
  - 연구인력의 창업(spin-off) 활성화
  - 벤처빌딩 건립 추진
- 이밖에도 올해 들어 통산부의 「혁신선도형 기업 육성 프로그램」(1/24), 금융개혁위원회의 벤처기업 금융지원 확대 방침(3/11) 등이 발표되었음
-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높아 획기적인 지원책이 기대됨

1) 벤처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'신기술'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가리킴. 현행 정책지원체계에서는 벤처캐피탈(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)이 10% 이상의 자금을 투자한 회사를 벤처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.

미국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며, 지식 기반경제에 가장 적합한 기업형태

- 벤처기업의 의의 : 경쟁력 회복의 견인차
  - 미국 경제 경쟁력 회복의 원동력
    - 미국 경제의 경쟁력 회복과 장기호황의 원동력은 실리콘 벨리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 벤처기업임
    - 인텔, 마이크로소프트, 휴렛팩커드 등 정보통신산업을 지배하는 기업들이 모두 미국의 벤처기업
  - 벤처기업은 향후 전개될 知識基盤經濟(knowledge-based economy)에 가장 적합한 기업 형태로서 ‘量의 경제’에서 ‘質의 경제’로 이행의 주역
    - 개인의 창의성과 전문적 지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업조직이 요구됨
    - 유럽, 일본 등 선진국들은 향후 자국의 경쟁력이 첨단 벤처기업에 달려 있다는 인식하에, 지원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
    - 선진 대기업들은 이른바 ‘대기업 病’의 치유책으로서 社内 벤처制 도입, 사내 연구인력의 창업 지원 등을 통해 네트워크형 기업으로의 변신을 도모하고 있음
  - 국내 산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의 하나가 될 수 있음
    - 핵심 부품, 첨단 요소기술 등 지속적 고도성장을 가로 막는 장벽들을 돌파하는 역할 기대
    - 첨단기술, 경영능력, 유희자금 등 사회내 경영자원들의 최적 결합을 통한 경제 활력소 역할 기대

고비용 저효율 구조 극복에 기여

일반 중소기업의 창업 열기에 비해 벤처기업 창업은 상대적으로 저조

- 국내 벤처기업의 현황 및 전망
  - (현황) 중소기업 창업 열기에도 불구하고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의 창업은 상대적으로 저조함
    - 90년대초까지 연간 1만건을 밑돌던 중소기업 창업은 92년에 1만건을 돌파한 이래 95년 1만 5천건, 96년 1만 6천여건을 기록하는 등 급증 추세
    - 하지만 벤처기업을 주도하는 대학 및 연구소 출신 창업자 비중은 2.8%에 불과해, 선진국의 창업

- 이 대학 및 연구소 출신 중심인 것과는 대조
- (전망)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인재들 사이에 잠재적인 벤처창업 열기가 높아 적절한 지원제도만 갖추어진다면 벤처기업의 급성장이 기대됨
  -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,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60% 이상이 취직보다는 창업을 희망
  - 벤처기업협회는 현재 1천 7백여개인 국내 벤처기업이 2005년에는 4만 3천개로 증가하고 총매출은 17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

목표지향적 정책은 무의미하며 발전 환경의 조성에 주력해야

○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

- 언제까지 몇 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식의 목표지향적 정책은 무의미하며, 정부의 역할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있음
- 벤처기업 발전의 세가지 조건: 실리콘 벨리의 경험
  - 胚胎組織 : 벤처기업의 모태가 될 기술과 창업가 양성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/기업의 연구소 등
  - 지원조직 : 창업 초기의 벤처기업들에 부족한 자금, 경영능력, 고급인력, 기타 기업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캐피탈, 마케팅/홍보 서비스 회사, 법률자문회사, 컨설팅 회사 등
  - 환경조건 : 지역적 결집으로 기업간 공식·비공식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었음
- 이에 비추어 국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 4가지로 집약될 수 있음

핵심 정책과제는 제도적 여건 정비, 배태조직 활성화, 지원조직 육성, 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집약됨

① 제도적 여건 정비

- 제도적 여건이 완비된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벤처기업 발전의 기본 여건 자체가 아직 미흡함
- 벤처기업의 성공은 다양한 경영자원의 소유자들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데에 달려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함
- 핵심적 인센티브가 주식매각 차익이므로 장외시장 등록조건 완화, 스톡옵션제 활성화가 긴요함

- ② 胚胎組織(Incubator) 활성화
  - 대학의 실용교육 강화
  - 정부/민간 연구소가 소속 연구원의 창업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제공해야 함
- ③ 지원조직(특히 벤처캐피탈) 활성화
  - 벤처캐피탈 확대(진입규제 철폐, 개인투자 허용, 연기금의 벤처캐피탈 투자 허용 등)
  - 벤처캐피탈의 경영능력 지원 기능 강화(창업지원 중심에서 전방위적 지원으로)
- ④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촉진
  - 지역적 결집 위한 벤처빌딩, 미디어밸리 조성
  - 벤처기업간 정보 공유·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협회 조직의 충실화, 공동정보시스템 운용을 추진

○ 벤처시대의 대두와 대기업의 과제

사내 인력의 창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

벤처캐피탈에 적극 진출해 기술탐색능력 제고의 계기로 활용

-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
  - 스톡옵션제 도입에 따라 이미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고급인력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
  - 연구환경 개선, 프로젝트베이스의 특별성과급제 도입 등 고급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
- 보다 적극적으로는 사내 연구인력의 창업을 지원하고 그들과 지속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함(社內 벤처제도 등)
  - 사내 연구인력에 대한 창업 지원은 기업내 R&D의 효율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
-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 시장 적극 진출
  - 벤처캐피탈 자체가 하나의 벤처 비즈니스로서 유망한 사업 영역이 될 수 있음
  - 향후 경쟁력의 관건이 될 기술평가·탐색 능력 및 노하우를 내부화하는 계기로 활용
  - 특히 미국 등 해외 벤처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선진기술 탐색·도입·활용의 계기로 적극 활용

(김 건)